

'청년일자리 공조 체계 구축'

군산시, 민·관·산·학 '원팀' 구성... 실무협의회 운영

군산시가 전방위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군산시 청년일자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15일 군산시청 재난상황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관내 일자리 관련 민·관·산·학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발굴,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청년 인구 유입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엔 구성된 실무협의회는 시 일

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계를 주축으로 군산고용복지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상공회의소, 전북산학융합원,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군산시청년센터 등 6개 기관과 군산대·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호원대 취업지원실, 군산기계공고 군산여상, 군산상고 등 6개 학

교, 군산국제커리어센터, 휴먼제이앤씨 군산지사, 제이비커리어 군산지사, 캠퍼스종합기술원, 군산시 경영자 협의회 등 5개 민간·기업단체를 포함해 총 18개 기관이 참여한다.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청년 일자리관련 지원사업 진행을 공유하고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시 관계자는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기관별 청년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이고 민간에서 제시한 일자리 관련 의견과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이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밤이 빛나는 도시로 탈바꿈된다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익산'

야간경관 명소화계획 수립운영 착수

익산이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밤이 빛나는 도시로 탈바꿈된다.

시는 지난 15일 지역의 야간경관을 발굴할 '야간경관 명소화계획 수립운영'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등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석해 명소 선정계획과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운영을 통해 시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야간경관 10대 명소를 발굴한다. 기존 경관지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빛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야간에도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10대 명소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 10억을 투입해 야간경관 명소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야간경관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통합적·체계적인 빛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지역 야간경관 현황조사와 분석으로 관리계획을 세우고 빛의 축과 거점을 설정한다.

유원항 도시개발과장은 "이번 사업이 야간경관 명소 도시 익산으로 발돋움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분한 사전조사와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제9대 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5일 오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조남석 위원



이종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조남석 의원, 부위원장 이종현 의원, 위원으로는 강경숙, 김경진, 손진영, 송영자, 조은희 의원이 선임됐으며, 2023년 6월 30일까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활동기간 중),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첫 일정을 시작한다.

조남석 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됐는지 면밀히

살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망성, 용동을 지역구로 둔 조남석 위원장은 3선의원으로 제8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평소 특심 있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주민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갈등·분열·고발 좌시않겠다"

정현을 익산시장, 지역 이미지 실추·행정 발목잡기식 고발... 강력 법적 대응 천명

정현을 익산시장에 선거 분위기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갈등과 분열, 고발을 지역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 가장 수준높은 클린선거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 시장은 선거 과정의 일부를 트집 잡아 고발에 나선 극소수를 목과할 경우 행정력 실추, 지역 이미지 추락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강력한 민·형사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익산시민이라고 밝힌 A씨는 정 시장이 61지방선거를 맞아 MBC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 일부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 14일 검

찰에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배포했다.

고발에 나선 인물은 상대 선거캠프 운동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후보들은 경선 토론회는 물론 경선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없이 승복했고, 경선에서 탈락한 두 후보는 모두 정 시장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선거승리를 이끌었다.

앞서 무소속 임형택 후보도 토론회에서 정 시장이 발언한 '도시공영 민간 특례사업' 관련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 사안은 선관위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임 전 후보는 검찰에 추가 고발

을 강행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 시장은 "선거 기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전을 제시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클린선거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하지만 선거에 승복하지 못하고 고발을 일삼는 행태는 시장 운영에 큰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도 떨어뜨릴 수 있어 법적 검토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정 시장은 "어려운 경제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이런 행태는 절대 목과할 수 없다"며 "최초 3선 시장으로서 멈출 수 없는 익산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선유도해수욕장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군산시는 지난 15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선유도해수욕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선유도 물가안정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선유도주민통합위원회, 소비자단체와 물가모니터



요원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가해 바가지 요금 근절과 친절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시는 이에 앞서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맞춰 지난 8일부터 오는 8

월 16일까지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안정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요금 신고센터

(☎442-2038, ☎462-7778, ☎454-2673)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선유도주민통합위원회와 사전에 주요 판매품목별 가격을 협의해 협정가격표를 제작 배부했으며, 음식점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전단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김현석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선유도를 방문하는 피서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 수 있도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